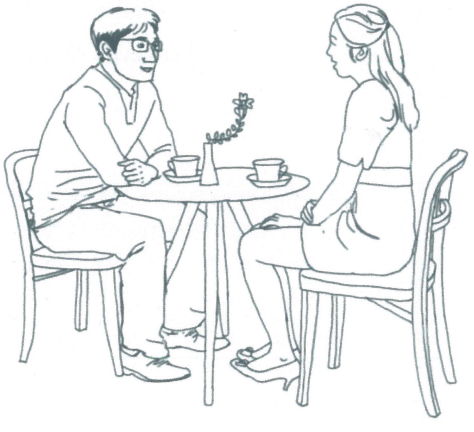
여2 Track 1. 아하 한국어 5

여2 1과 인상과 느낌

대화

Track 01



여자1 하나 어제 소개팅에서 만난 사람 어땠어?

남자 민호 글쎄. 잘 모르겠어.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첫인상이 좀 차가웠어. 잘 웃지도 않고. 난 잘 웃는 여자 좋아하잖아.

하나 그래? 그래도 몇 번 더 만나 보는 게 어때? 나도 내 남자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는 첫인상이 안 좋았어. 운동복을 입고 소개팅에 나왔거든. 게다가 나이에 비해서 너무 늙어 보이더라고. 그런데 만나다 보니까 결혼까지 했잖아.

민호 그래? 나는 네 남편 인상 괜찮던데…
나는 첫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은 왠지 정이 안 가.

하나 첫인상이 나빠도 좋은 사람일지도 모르니까 더 만나 봐. 올해 안에 장가 가야지.

민호 하긴 그래. 예전 여자 친구도 첫인상은 별로였으니까. 이번 주말에 영화나 보자고 할까?

하나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전화해 봐. 그리고 내가 오늘 시내에 갈 일이 있는데, 가는 김에 영화표 예매해 줄게. 빨리 전화해 봐.

민호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

여2 Track 2. 아버. 한국어 5

여2 2과 딸의 힘

대화

대1 지선 링링!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여2 링링 그래? 내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어? 난 왜 이렇게 감정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지?

지선 누구나 자기 감정을 숨기기란 쉽지 않지.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링링 민호 있잖아. 이번에도 한 팀이 돼서 일을 같이 하게 됐거든. 그런데 또 정한 날짜까지 약속한 일을 안 해 온 거야.

지선 그래서 또 이번에도 민호한테 뭐라고 그랬어?

링링 응, 네가 이렇게 일을 안 해 오는 한 나는 더 이상 같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따끔하게 이야기했지.

지선 그랬더니 민호가 뭐래?

링링 사과는커녕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왜 자기한테만 그러냐고, 내가 너무 까다롭게 군다고 하더라.

지선 그랬어? 민호도 잘한 건 아니지만 화를 내기 전에 먼저 왜 못했는지 물어보지 그랬어? 처음부터 너무 감정 상하게 말을 한 건 사실이네.
다음부터는 앞뒤 사정을 먼저 물어보든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돌려서 말하든지 해 봐.

링링 그러게. 나도 그럴 필요가 있는 건 아는데 잘 안 된다.

지선 마음먹기 나름이야. 다음부턴 명심하고 잘해 봐. 그리고 민호한테도 네가 먼저 좋게 다시 말을 걸어 봐. 언제까지 껄끄럽게 지낼 수는 없잖아.

Track 3

3과 찬성과 반대

대화

Track 01 3

여 | 하나 어제 사형수들에 대한 영화를 봤는데 정말 슬펐어요.
사형은 또 다른 살인인 것 같아요.

남 마이클 글쎄요.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죄를 지었으면 그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해요.

하나 꼭 죗값을 죽음으로 치러야 할까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잖아요.

마이클 하나 씨 말도 맞기는 맞는데, 그렇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죄와 사람을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 사형 말고도 다른 벌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가령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반성하게 한다든지…

마이클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는 사형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요.

하나 네,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사형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어요.

마이클 사형 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도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네요.

하나 범죄 예방 효과가 있기는요. 사형제도가 있지만 꾸준히 범죄가 늘고 있어요. 그리고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에서도 범죄가 더 늘지는 않았다고 해요.

Track 4

(여자2) 아하 한국어 5

BGM: 5초 정도 후에

(여자2) 3과 듣기

Pause: 5초

님비 현상이란 'Not in my back yard'의 앞 철자를 따와서 만든 단어로 쓰레기 소각장, 분뇨 처리장, 화장장, 원자력 발전소 등 필요한 시설이지만 '우리 동네는 안 된다'며 거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반면 핌피 현상이란 '님비 현상'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자기 지역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려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자치의 확대에 따라 나타나는 '지역 이기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혐오 시설을 기피하는 님비 현상만이 문제가 되었으나 요즘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시설을 자신의 지역에 유치하려는 핌피 현상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track 5.

4과. 통계와 그래프

대화

여 지선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심지어 어떤 학교는 폐교하는 경우도 있대.

남 민호 하긴 한국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니 초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

지선 신문이나 뉴스에서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 말할 때마다 별 생각 없이 들어 왔는데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민호 맞아.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는데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 점차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면서 생길 사회적 문제들도 잘 생각해 봐야 될 거야.

지선 음…… 내가 빨리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도 출산율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

민호 그래, 너라도 한국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공헌을 해 봐. 하하.

지선 그러려면 아이들 양육비와 교육비는 말할 것도 없고 노후 자금도 준비하기 위해 나이가 들어서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잘 찾아봐야겠다.
아……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

민호 그러게, 잘 생각해봐. 다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 지금 같은 추세로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난다면 직업을 구할 때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겠는걸.

지선 노후를 준비하는 일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저출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돼. 출산 지원금을 준다든가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제도말이야.

Track 6.

5과 생활의 지혜

대화

Track 81

첸 어젯밤에 친구들이 우리 집에서 술 한잔 하고들 갔어. 그런데 남은 맥주가 좀 있는데 버리기는 아깝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데가 없을까?

지영 그래? 남은 맥주를 유용하게 쓰는 방법이 꽤 있어. 저번에 맥주로 화초 잎을 닦아 봤더니 먼지가 잘 닦여서 훨씬 윤기 있고 건강하게 보이더라. 아니면 가스레인지나 환풍기의 찌든 때를 제거하는 데도 좋아.

첸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너는 공부도 잘 하더니 다방면으로 모르는 것도 없구나!

지영 괜히 비행기 태우지는 마. 그럼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생각나는 것 몇 가지 더 알려 줄까? 집에 흔히 있는 식초는 요리할 때 사용하기는 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해.

첸 어, 맞아. 식초가 냄새 제거하는 데도 탁월하대. 물에 희석한 식초로 그릇이나 도마의 냄새를 없앨 수 있다고 들었어.

지영 응, 그래서 발 냄새 나는 사람들이 식초 물에 발도 담그고 있대. 너 혹시 매일 집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하.
아, 그리고 식초를 희석한 물로 과일이나 야채를 씻으면 농약 성분을 제거할 수 있대. 잘 떼어지지 않는 스티커에 식초를 몇 방울 뿌려 놓은 후에 떼면 쉽게 잘 떼어지기도 하고.

첸 그럼 다음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뗄 때 식초를 이용해 봐야겠다.

지영 첸! 교통 법규를 잘 지킬 생각을 해야지, 스티커 뗄 방법부터 생각해?

Track 7.

6과 풍습과 축제

대화

프엉 한국에선 결혼 준비를 보통 누가 해요?

소영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신부 측이 혼수를 준비하지요. 신랑 측은 신혼 집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신랑, 신부 모두 예물과 예단 같은 것들도 준비해요.

프엉 그건 어떤 거예요?

소영 프엉 씨가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걸 보니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랑 결혼할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프엉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에이, 놀리지 말고 그냥 얘기해 주세요.

소영 하하, 알았어요. 예물은 신랑 신부의 반지나 시계 같은 것들을 말하고 예단은 신랑, 신부, 양가 어른들과 가족의 옷이나 물건들을 말해요.

프엉 와, 역시 결혼이라는 건 어디나 간단한 것은 아니네요. 준비할 게 이렇게 많고 복잡하니 말이에요.

소영 사실 복잡하지도 간단하지도 않아요. 아,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결혼식 전에 신랑이 신부 집에 '함'이라는 것을 보내요. 함 속에는 신랑의 사주, 혼서지, 예물 같은 것을 넣는데요, 신부 집에 함 들어가는 날에는 재미있는 풍습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요즘은 결혼 문화도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느는 추세예요. 제대로 준비하자면 끝이 없거든요.

Track 8.

죽과 삶과 죽음

대화

Track 018

남1 사회 안녕하십니까? '토론 마당' 입니다.
오늘은 환자의 의사에 따라 생명을 단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여1 찬성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목적에서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연명하느니 차라리 편안하게 죽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남1 사회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여2 반대 맞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있는 환자들이 집중적으로 이런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선택이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여2 찬성 의료보험공단의 통계를 살펴보면, 말기암 환자의 경우 사망 직전 석 달 동안 전체 암 치료비의 70%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남2 반대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 죽음을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이 있으면 연명치료를 하고, 돈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사회 통합의 측면에서나 인간 존엄성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새단어

Track 9.

일과 속담과 관련

대화

Track 07

애리 로자 씨. 한국어 능력 시험 공부 많이 했어요?

로자 네, 이번에는 느낌이 아주 좋아요. 6급에도 합격할 것만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이러다가 6급에 합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애리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세요. 그러다가 실망하게 되면 어쩌려고요. 5급에만 합격해도 대단한 거예요.

로자 이번이 세 번째 도전하는 시험이라서 그런지 별로 긴장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농담이려니 생각해 주세요.

애리 그나저나 수험번호는 확인했어요? 지난 번 시험은 접수가 잘못 되어서 시험에 응시하지도 못했잖아요.

로자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접수할 때 완벽하게 했어요.

애리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는 말이 있잖아요.

로자 알았어요. 알았어. 역시 애리 씨는 꼼꼼해요. 가끔은 우리 엄마 같다니까요. 애리 씨는 한국어 능력 시험 이번에 안 보지요?

애리 네, 로자 씨도 아는 바와 같이 저는 4급이 있잖아요. 그냥 4급으로 만족해요. 지금 졸업논문 쓰느라고 정신없기도 하고요.

로자 졸업논문 주제가 뭐예요?

애리 한국과 일본의 속담 비교예요. 한일 간 비슷한 속담이 아주 많거든요.

로자 저도 우리나라 속담과 한국 속담이 비슷한 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일본과도 비슷한 속담이 많군요.

애리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일상생활을 통해 전해 내려오는 지혜를 담고 있어서 그럴 거예요.

로자 재미있는 주제네요. 논문 잘 쓰길 바랄게요.

애리 로자 씨도 이번에 꼭 5급에 합격하길 바랄게요.

새 단어

김칫국
대단하다
도전하다
수험번호
응시하다
졸업논문
주제
간
지혜

Track 15

9과 한국의 문학

대화

Track 07

제니 오랜만에 서점에 오니까 흥미로워 보이는 책들도 많이 보이네요.

링링 저는 요즘 친구한테 받은 한국 시집을 읽고 있는데 좀 어렵긴 해도 참 좋더라고요.

제니 시집이요? 아무리 한국어에 익숙해도 한국어로 된 시를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 않아요?

링링 사실 저도 처음엔 겁이 좀 났는데 막상 읽어 보니까 공감 가는 것도 많고 이해하기 많이 힘들지 않던걸요. 제니 씨 한국어 실력 정도면 이해하고도 남을 거예요.

제니 에이, 괜한 칭찬 마세요. 저는 한국 소설책 몇 권을 선물로 받고도 아직 첫 페이지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포장된 채로 그대로 책상 한쪽에 놓여 있어요.

링링 물론 시에는 어려운 어휘들도 있고, 우리가 평소에 잘 접해 보지 못했던 말들도 많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든지 사람의 감정은 다 비슷한 거 같아요. 작가의 감정을 잘 헤아리며 읽다 보면 어느새 그 시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제니 그렇군요. 저는 문학은 왠지 부담스러웠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시도해 봐야겠는 걸요. 혹시 추천해 주고 싶은 시인이라도 있어요?

링링 한국의 대표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소월의 시들을 읽어 보세요. 그 중에서도 '진달래꽃' 이라는 시는 한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알 정도로 유명한 한국의 대표 시예요.

제니 알겠어요. 저도 당장 그 시부터 한번 도전해 봐야겠어요.

링링 그래요. 읽다가 혹시 다른 한국 시들도 더 읽고 싶어지면 우리집에서 빌려다 보세요.

Track 11

10과 비유의 표현

대화

Track 01

남 마이클 어젯밤 너무 무리를 했더니 오늘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것 같아. 머리도 지끈지끈하고 속도 안 좋고.

여 유리 왜? 어제도 늦게까지 못 잤어?

마이클 아니, 사실 어제는 모처럼 만난 친구들이랑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좀 했거든. 그래서 집에도 늦게 들어가고 잠도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오늘 학교에 왔어.

유리 어쩐지…… 그래서 그랬구나! 너 아직도 20대 초반인 양 그렇게 술을 과하게 마시면 어떡해? 이제 슬슬 건강에도 신경 써야지.

마이클 괜찮아. 오늘 하루 잘 쉬면 **씻은 듯**이 나아. 이래 봬도 아직 건강에 자신 있다고!

유리 그렇다면 다행이지. 하하, 그나저나 네가 오늘 아프니까 온 교실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 떠드는 사람이 없으니 말이야.

마이클 그런가? 그럼 쉬는 시간에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야겠다. 내가 너무 가만히 있으면 우리반 친구들이 모두 재미없어 할 테니까 말이야.

유리 별 걱정을 다 하시네.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어서 눈이나 좀 붙여. 그런데 내가 보기엔 수업 시간까지 계속 잘 듯싶다. 쯧쯧.

마이클 아냐, 그럴 순 없지. 내가 제때에 안 일어나면 때려서라도 꼭 날 깨워줘.

새 단어

지끈지끈하다
모처럼
삐뚤어지다
어쩐지
이래 봬도
과하다
그나저나
눈을 붙이다

Track 12

11과 신문과 뉴스

대화

Track 81

기자 UN 사무총장님 반갑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무총장 별 말씀을요.

기자 어린 시절부터 사무총장님은 공부벌레였다고들 하던데요.

사무총장 공부벌레라고요? 아이고…… 사실 제가 공부 욕심은 조금 많았습니다. 공부가 재미있기도 했고,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한가하게 놀러다닐래야 놀러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기자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외국어에도 능통하시다고 들었는데요.
외국어 공부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까?

사무총장 외국어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외우고 말하는 것 뿐이지요.

기자 언제부터 UN에서 일하기를 희망하셨습니까?

사무총장 제가 고등학교 때 미국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외교관이 되고 싶은 꿈을 확고히 했지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셈이에요. 그리고 외교관이 되어 세계 여러나라를 돌아다니며 일을 하다 보니 UN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UN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한국의 학생들과 젊은이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무총장 요즘 전세계적인 불황으로 한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이 취직하기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좌절하지 말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그 꿈에 가까이 가 있을 것입니다.

기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Track 13

12과 취업과 면접

대화

Track 01

여 유리 링링! 어제 ~~또~~ 대학교 면접 봤지?

여 링링 으응.

유리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없어. 면접 끝나고 보니까 후회돼?

링링 합격하긴 다 틀렸어.

유리 말이 씨가 된다고 했어. 좋은 쪽으로 생각해.

링링 면접에서 할 말을 밤을 새우다시피 해서 준비했는데, 교수님들 얼굴을 보자마자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긴장하면 말더듬잖아. 다 대답해 냈어야 했는데…….

유리 교수님들께서 어떤 것들을 물어보셨는데?

링링 왜 우리 학교에 지원했느냐, 우리 과에서 앞으로 무엇을 공부할 거냐, 우리 과를 졸업한 후에 진로는 어떻게 할거냐……. 뭐 그런 질문들이었어.

유리 별로 특별한 건 없는 질문들이네.

링링 그러니까 더 문제지. 그런 평이한 질문들을 하셨는데 내가 버벅댔으니까.

유리 어제 면접은 잊어버리고, 다음 주에 있는 ~~동~~명 대학교 면접준비나 하는 게 어때?

링링 안 그래도 나도 그러려고. 다음 주에는 꼭 긴장감과 싸워서 이겨내고야 말겠어.

유리 그래 힘내! 파이팅!